

“불법 오염토양 즉각 반출을”

심민 임실군수 “이행 안할 경우 무단 반입 고발조치 등 취할 것”

임실군이 토양정화업체가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토양을 즉각 반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행제한시설 설치, 물론 공장 진입로의 하천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지난 31일 심 민 임실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덕면 토양정화업체는 3월말까지 불법으로 반입한 오염토양 350톤을 반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 반입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영업중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 했는데도 묵살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최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왔던 옥정호는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3개 시군에 매일 4천3천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5년 폭우로 인해 동부지 하천이 범람하여 공장이 침수되고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유입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심 군수는 “옥정호는 고유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환경부가 3대 국가지정습지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물둘이 습지가 인접해 있다”며 “오염원 유입 시 국가지정 습지 훼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조속한 토양환경보전 개정 추진도 촉구했다.

심 군수는 “2004년 부터 환경부장관이 관리해 오던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을 2012년 6월에 법령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지사에게 등록권한을 위임해 주는 말도 안되는 예규를 적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경북 영천군을 비롯한 여타 시군에서 지역 간 갈등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만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 군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방관하고 법령 개정에 모르쇠로 대처 해온 환경부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며 임실과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임실군은 토양오염시설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덕면 토양정화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어 1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덕면에 있는 토양정화업체는 현재까지도 무허가 업체에 불과하다.

심 군수는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토양의 반출과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오염토양을 반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심 군수는 “2004년 부터 환경부장관이 관리해 오던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을 2012년 6월에 법령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지사에게 등록권한을 위임해 주는 말도 안되는 예규를 적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경북 영천군을 비롯한 여타 시군에서 지역 간 갈등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만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 군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방관하고 법령 개정에 모르쇠로 대처 해온 환경부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며 임실과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임실군은 토양오염시설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덕면 토양정화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어 1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덕면에 있는 토양정화업체는 현재까지도 무허가 업체에 불과하다.

심 군수는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토양의 반출과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촌주택신축·빈집철거 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신축·빈집철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신축 80동, 빈집철거 90동의 사업물량과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지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한다.

용자 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대출가능액)가 결정돼 농촌주택신축 대상지는 반드시 농·축협 등에서 용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농촌주택신축 대상지는 연리 2%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농촌 빈집철거 사

업은 1년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홀몸스텝게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일반빈집은 최대 1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군 서화중 농촌주택개량사업장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신축(용자)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는 물론 방치된 빈집철거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림축산·식품산업 지원사업 신청

임실군이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농림축산 및 식품산업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된 사업은 임실군 농림축산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전라북도에 사업예산을 신청

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군 농업축산과, 농업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 산업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농축업 관련기관에 문의하거나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방문 시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면 된다. 읍면 이장회의 및 영농교육 시 집중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의 농림축산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신청한 사업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농업인,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하고 부진지표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확보한 1억5천만원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효과를 신속히 나타낼 수 있는 시설비 사업 중심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지표별 체계적 사업추진으로 도내 최우수 달성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친절하고 청렴한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촌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마을 조성 활력 불어넣기

남원시 농한기 활용 프로그램 추진

남원시가 농한기를 활용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동네 행복 뭐? 간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활력 사업은 50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경제·교육·문화·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을 추진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농촌활력(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전 단계로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간에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올 농한기(2월~3월, 11월~12월)에 진행되는 사업은 미용, 요리, 물박놀이, 반찬가게 등으로, 시는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와 강사비로 1억원을 지원해 주회 마을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에는 341개의 농촌마을이 있으며 2014년부터 1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행복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사매면 노봉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통돌이인 물박놀이를 겨울 추위를 잊고 있으며, 최고령인 90세 이복순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65세 이상 15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봉마을 물박놀이단은 2019년 생생마을콘서트 전라북도대회(6월)와 농림축산식품부 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세근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단계별(1단계 참여형 공동체, 2단계 문화복지 공동체정착형, 3단계 자율형 마을자원개발형, 4단계 공모사업 참여) 농촌 활력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선정

남원시가 2017~18 2년 동안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2018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의 70%를 차지하는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에서 우수 시군에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 시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 남원시는 사회복지, 보건위생, 일자리창출 등 7개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이와 같은 쾌거는 평가대비를 위하여 매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고 부진지표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확보한 1억5천만원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효과를 신속히 나타낼 수 있는 시설비 사업 중심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지표별 체계적 사업추진으로 도내 최우수 달성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친절하고 청렴한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 1,472가구 중 전북지역은 202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 원활한 청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와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순창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1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군 공무원 300여명과 관내 30여개 기관, 사회단체 4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날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순창지역본부(정광필 본부장)의 장바구니 배부(1,200개) 행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와 전통시장 이용 홍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설 명절 제품 구매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정도 느낄 수 있는 순창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누리상품권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해 판매중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